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마귀의 사람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면 마귀의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완전히 시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분별이 안 되어 가지고 마귀의 사람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면 마귀의 사람이 이루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귀의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지, 마귀의 사람은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고 했죠? 마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합니다. 마귀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마귀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데 구세주의 말을 마귀 생각대로 판단하고 마귀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귀 식으로 생각을 하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나는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마귀 새끼요, 나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 고로 나라는 것을 짓이고 죽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는 거지, 마귀의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되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명심해야

이 사람이 말하기를, '구원의 방법은 맡기는 데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무럭무럭 자라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는 말은 '나'라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마귀라고 자위(自慰)를 하면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공경을 해야 자신 속 하나님의 영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이 세지는 고로 이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어야 구세주가 되는 고로 구세주가 되어야 천당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당에서 살 존재는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나'를 짓이기고 '나'를 마귀새끼라고 여기면서 '나'를 짓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몸 안에 병이 낫는 것도 마귀 몸이 병이 나으려고 하면 안 낫습니다. '나'라는 것이 병이 나으려고 하면 병이 낫겠어요? 병이 안 낫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몸이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야 병도 낫고, 영생도 되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몸이 강건해져서 병마가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그 몸은 하나님의 전당(殿堂)이 되는 고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전당은 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병이 걸린 몸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나아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초로 구세주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죠? 구세주 얼굴이 삼위일체 하나님 얼굴이에요. 인간의 얼굴로 보면 그건 착각입니다. 격암유록에 씌어 있어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다.' 사람같이 생겼죠! 이것은 마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귀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마귀 탈을 입은 겁니다. 사람 몸을 입은 것은 마귀 탈을 입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마귀들이 마음 놓고 상대를 하고, 마음 놓고 마귀 때려 죽이는 도살장(屠殺場)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오는 것은 사람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태로 나타나면 무서워서 여기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구세주는 전지전능자

마귀가 뭐 어디 공중으로 떠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다 허튼 소리입니다. 물론 마귀 대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미 이 사람 밀실에 있을 때에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기 때문에 마귀 대장은 없습니다. 이 공중에 지금 구세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올라가서 구세주의 분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지가 22년째입니다. 구세주라는 존재가 완성자의 존재이고, 전지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고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5대 공약을 했던 겁니다. 쥐뿔도 아무 실력도 없이 5대 공약을 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니까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 해놓고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차돌을 들고 이 사람 머리를 칠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머리를 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죠? 또한 이 사람이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맛비가 못 오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또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승리제단 식구 쳐놓고 이거 모른다면 승리제단 식구가 아니죠? 이 사람이 "전쟁, 우리나라에서 못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전쟁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적어져서 그런 거죠?

영생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늘 웃어라, 웃으면 영생 얻는다." "웃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영생의 확신을 왜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영생 주는 구세주가 단상에 서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구세주를 마음 속에 새기면 구세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때에는 하나님의 전당이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몸이 하나님의 전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마음속에 새기면 어떠한 병도 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해봤죠? 어떤 병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전당이 되어버리면 병에 걸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다(민수기 27:16)"라고 그런 말씀이 씌어 있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나 육체가 있지 죽은 사람의 몸은 육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몸은 마귀의 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전당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간단하게 구세주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의 얼굴이 바로 생명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구세주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사람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세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새기면 병이 나아버려! 암이고 무슨 병이고 다 나아버려! 암환자들이 우리제단에 와서 예배보고 나서 암이 나았다고 간증들 했죠? 의사처럼 암을 치료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구세주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바로 암이 나아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전당이니까 암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전당이 하나님의 전당으로 변화되면 암은 그 순간부터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겁니다.

구세주는 생명과일이다

구세주가 왜 영생을 주느냐하면 생명과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구세주가 이슬성신을 내리느냐? 이슬성신은 불경에서 말하는 감로인데,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불경에도 씌어 있습니다. 이슬성신이 구세주한테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내립니다. 육천 년 인류역사가 흐르면서 이러한 이슬성신 내리는 사람 있었어요? 모세가 내린 이슬만나는 먹고 죽는 만나입니다.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슬 같은 만나는 지금 이슬성신과 보기에 똑같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했어요.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구세주를 배척을 하고 구세주를 반대하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을 터이니 두고 보세요. 5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세주가 생명과일인 고로 생명과일을 늘 나와서 먹으면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일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야. 그래서 죽는 겁니다. 선악과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과일을 먹으세요. 생명과일인 구세주의 얼굴을 늘 마음속에 새기세요. 구세주의 사진을 하루에 백 번 이상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보고, 또 거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고, 밥 먹으면서 또 보고, 밥 다 먹고도 보고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거지가 바뀌질 적마다 그 구세주 얼굴을 바라보면 그 구세주의 영이 내 맘속에 항상 있다가 되는 고로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옥가요. 그건 꼭 죽어! 하루 한 번씩 봐도 영생이 안 이루어지는데, 며칠에 한 번씩이나 보면 꼭 죽는 겁니다. 생명과일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왜 순종을 안 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이라고 했어요. 영적 말은 바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새기면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걸 기독교에서 가르쳐줘요? 몰라서 못 가르쳐줘요. 선악과를 먹는 방법은 잘 가르쳐 주어요. 죄인을 사랑하면 '선악과를 먹었다.'로 떨어집니다. 죄인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만 늘 고도로 사모하고 사랑해야지, 죄인을 사랑하면 그건 선악과를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는 생활을 하지 마세요. 구세주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는 연단을 받도록 하세요.

또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온전히 맡겼다가 됐을 때에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옛날 영모님 때부터 말씀을 했죠? 해와 이긴자도 이야기했고, 이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순종을 하면 구원이 틀림이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종도 여러 가지입니다. 순종헌금을 낼 때에 한꺼번에 내어버리면 순종했다가 되고, 조금씩 조금씩 내는 것도 그것도 역시 순종을 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세주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002년 11월 6일 말씀 중에서

피의 원리

不老長生 어떻게 가능한가

인류는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려 했나

인간은 죽음이 있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잊고서 다른 것을 찾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 앞에 그 모든 삶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버리고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죽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연 인류는 '죽음'이라는 크나큰 불행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애절한 노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는가? 이것을 동서양의 사고와 관점으로 나누어 보면 그 속에서 특기할 만한 것과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서양적 사고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으로 보는 것이 문제

먼저, 서양적 사고를 들여다보면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자유하고 행복한 영원한 세계를 끝없이 높푸른 하늘 위에 상정하고 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참담한 인생 앞에 하늘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롭고 이상적이다. 땅위에서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투쟁으로 인해 괴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부자유하게 땅을 밟고 사는 약하고 여린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는 하늘만큼이나 평화롭고 사람 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하늘은 땅 위 삶의 피난처요 무시간의 영원한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유한한 현실 세계와 별도로 영원한 사후의 세계의 안식과 평안으로 관념이 발달 확립하게 되는 이원적 세계관으로 나누어 보게 된 것이다.

이승에서 잠시잠깐 살다가 죽어가는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영혼과 늙고 병들어 허물어지는 보잘 것 없는 육체로 나누어 보는 이원적 개념이 대두되게 된다. 비록 육체는 죽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초월적 내세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후관념이 확립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서양의 문명과 문화는 이상의 하늘 세계로 치솟아 오르려는 서양인의 염원이 고스란히 삶의 전반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빚어지는 사고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서양의 죽음관, 내세관, 종교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상상해 보자. 고대 서양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거대한 바위를 잘라 그것으로 성과 탑을 하늘 끝까지 닿도록 쌓으려 하지 않았던가! 서양 사람들의 사고의 기저에는 이 세계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는 고딕의 건물과 마천루라 불리는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양의 발레는 이 땅에서의 괴롬과 고통을, 땅의 속박을 벗어나 하늘로 비상하는 인간의 영원을 표현한다. 긴 다리, 긴 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의 균형, 그것은 저 하늘 세계에서 죽음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서양적 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초월적 내세(천국)에서 영원성을 보장받으려는 서양적 사고가 만들어졌다. 알다시피 서양문명의 원류는 중동지역이다. 중동지역은 사막성 지대의 건조성으로 말미암아 유목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 유목생활은 농경생활과는 달리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착된 땅에 존재의 근원을 삼을 수가 없다. 또한 신기루와 같은 환영 등 사막의 모든 현상은 덧없고 그림자와 같아서 쉽게 믿고 의지할 존재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땅은 그들 존재의 영원한 생의 순환의 마당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어떠한가? 하늘은 어디를 가나 항상 불변적이다. 그것은 항상 고상하게 보이고 무제한적이며 광활하게 보인다. 땅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성을 상징하는 반면에 하늘은 인간의 손길이 감히 닿지 못하는 접근할 수 없는 추상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유목생활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원 절대성을 보장해 주는 하늘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늘은 땅과는 달리 지고하고 유일하고 영원불변하다. 이러한 유목민족의 사고와 인식패턴은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유목민족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는 초월적 신만을 유일한 실재로 간주하는 사유를 낳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숭배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원적으로 분리되고 땅은 부정된다. 하늘과 땅의 분리는 곧 영혼과 육체의 분리, 내세와 현세의 분리, 신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한다. 전자는 영원불변하고 유일 절대적이요, 후자는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초월적 내세를 향한 영혼의 구원만이 그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바로 초월적 내세가 그들이 구상한 불멸성(immortality)의 통로였던 것이다.

동양적 사고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확보하고자 했는가

동양적 사고는 서양적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정반대이다. 서양적 사고는 죽음의 문제를 시간 너머 초월적 세계에 떠넘김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면, 동양적 사고는 죽음의 문제를 이 시간 안인 현실 세계 내에서 해결하려 했다.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영원한 순환과정으로 보였던 것이다. 모든 존재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고, 우주적인 시간의 흐름도 춘하추동 4계절이 어김없이 반복된다. 참으로 이 세계와 우주는 끝없이 순환하며 영원한 것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죽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상과 믿음을 자연적으로 낳게 한다. 나의 죽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나의 죽음은 영원한 우주적 순환을 가능케 한다. 나의 죽음은 영원한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우주적 순환고리를 타고 무한한 삶의 여행을 떠날 뿐이다. 나의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의 출발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과 사는 낮과 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과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를 충분히 위로받고 삶의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씨받이"라는 조선사회 풍속도 이러한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씨받이라는 행위를 여인 잔혹사 내지는 단순히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는 매우 얄팍한 생물학적 시각에서 보기를 거부한다. "씨받이는 조상숭배라는 종교형식을 주도이념으로 삼는 유교사회의 신분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제식적 사회적 행위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씨받이는 바로 자식으로 대속적 영생을 성취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례였던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과 영원성을 얻고자 하는 생손(生孫) 영생관과 조상숭배관을 낳게 된다. 이렇게 동양적 사고는 무한한 우주적 순환 고리에 나라는 개체를 흡수시켜 버림으로써 나는 우주적 삶의 무한성을 획득한다는 사고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땅으로의 귀속은 동양의 예술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서양의 발레가 공중으로 치솟는 동작이 많은데 반하여, 동양의 춤은 발이 거의 무대마루를 떠나지 않는다. 발은 무대 위를 사뿐사뿐 움직일 뿐이다. 이러한 동양의 일원론적 사유구조는 역시 그 환경과 기후의 영향 때문이다. 동양은 계절풍적 습윤성으로 인하여 농경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 땅은 동양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농경문화에 있어서는 나의 존재 양식의 원천이 바로 땅에서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은 땅으로 환원된다. 땅이야말로 모든 생명을 산출하는 순환의 마당은 바로 땅이고, 땅이야말로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양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 내세와 현세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한한 일원적 순환구조 안에서 영원성을 누린다는 것이다.*